

“유기견 ‘콩순이·토리’ 보금자리 찾았어요”

동구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
개소 일주일만 각각 새 가정으로
콩이·누룽지도 곧 전생 2막 시작
“고향사랑기부 활용 결실 뜻깊어”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조성한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개소 일주일 만에 유기견 2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다.

6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불로동 33-4에 고향사랑기부금 약 3억9천만원을 들여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 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은 유기된 동물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보호·교감 체험 공간과 놀이터, 입양 상담실, 반려 교육실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까지 하루 평균 50여명의 방문객이 센터를 찾는 등 개소 직후부터 자원봉사 등록과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장기 보호되던 유기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조성한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개소 일주일 만에 유기견 콩순이와 토리가 각각 지난 4·5일 새 가정에 입양됐다. <광주동구 제공>

견 중 입양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집중 수용하며 새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과 5월 새 보금자리로 떠난 콩순이(믹스견·6개월)와 토리(믹스견·2개월)도 광

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머물다가 이곳으로 온 생명들이다.

콩순이와 토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센터가 가진 지리적 이점이 작용했다.

광주 패션의 거리 인근에 위치한 덕에 충장로

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에 콩순이와 토리가 자연스럽게 띄웠고 입양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입양 전 센터는 상담을 거쳐 희망자가 소중한 생명과 잘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했다.

그 덕에 콩순이와 토리는 센터 개소 1주일 만에 새로운 가족의 품에 안겨 견생(犬生) 2막을 살게 됐다.

현재 센터에 머물고 있는 콩이(장모(長毛)치와와·1살)와 누룽지(믹스견·2개월)도 조만간 입양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버려졌던 생명들이 지역공동체의 정성과 기부로 다시 살아가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 운영은 반려동물 복지과 국제 긴급구조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Peace Winds Korea)가 맡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피스명명 유기견 입양센터(062-710-8044)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영기자



초당대 ‘총장배 고등학생 요리&제과 경연대회’ 성황

초당대학교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는 “최근 ‘2025 제9회 총장배 전국 고등학생 요리&제과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고등학교 및 요리학원에서 총 34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목포고 3학년 황은찬군이 차지했다. 금상은 살레시오고 3학년 박현우군, 은상은 해남고 3학년 정우준군, 동상은 장성고 3학년 박동현군이 각각 수상했다.

초당대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장학금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또

전남도교육감상, 무안군수상, 협회장상 등 특별상도 시상했다.

라재일 학과장은 “초당대는 30년 전통의 조리 명문 대학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글로벌한 셰프의 자질과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며 “도전과 열정을 지속해 미래 요리계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챌린지 프로그램,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장학 혜택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당대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는 호텔조리관광학부로 전환해 2026학년도에 신입생 50명을 수시모집한다.

/김다이지자



목포농협-북신안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목포농협과 북신안농협이 상호 5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목포와 신안의 나눔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목포시청에서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과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 안종팔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이 진행됐으며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이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에게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이 신안군청을 찾아 같은 금액을 기부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두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

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지난 4월 목포농협과 신안 지역 7개 농협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이어진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됐다”며 “목포와 신안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영모 북신안농협 조합장은 “이번 기부가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중학생 ‘제주 역사·생태 체험’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담양 지역 중학생 학생연합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제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담양을 담은 탐라 탐방’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체험학습은 담양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학생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과 너븐숭이4·3기념관을 방문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그 속에 담긴 평화·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또 한상술 꽃자왈과 세계자연유산센터 등을 찾아 제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유산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탐구했다.

이경애 담양교육장은 “올해 처음 실시된 ‘담



양을 담은 탐라 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역사 속 평화·인권정신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영암경찰, 소상공인 ‘노쇼 사기 예방 간담회’

영암경찰서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노쇼 사기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경찰은 실제 판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노쇼 사기의 주요 수법과 특징,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선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암=나동호기자

광주 북부소방, ‘수해 구조’ 이정재 소령 표창

현직 군인이 지난달 ‘괴물 폭우’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6일 육군 제31보병사단 비호연단 소속 이정재 소령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는 이 소령이 하루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7일 북구보건소 앞을 지나다 빠른 유속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벽을 붙잡고 있던 대학생 2명을 발견,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무사히 구조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이 소령은 “그 때와 같은 상황에선 누구나라도



망설임 없이 학생들을 구조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재영기자

순천대, 고교학점제 교육 ‘기후변화와 순천만’ 성료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순천시, 순천제일고와 함께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지역특화 교육과정 ‘기후변화와 순천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기후변화와 순천만”은 지난 2022년 국립순천대가 개발한 교과목으로, 2023년부터 순천제일고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돼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달 6·25일 총 34시간 운영됐으며 순천제일고를 거점으로 금당고, 순천매산여고, 순천여고, 복성고 등 5개 고교 학생 3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환경 인식, 기후변화와 연계된 습지



생태의 역할, 지속 가능 사회 고찰 등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졌다. 수강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6점을 기록했다.

/순천=양홍렬기자

‘5·18 시국선언 구속·해직’ 이상식 전남대 명예교수 별세



1980년 5월 ‘시국선언문’을 작성했다가 구속·해직됐던 이상식(사진)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6일 전했다. 향년 87세.

장성 출신인 고인은 광주,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충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 여고와 중앙여고 교사를 거쳐 1977년부터 전남대 사학과 강사로 활동했다.

1980년 5월13일 전남대 교수협의회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이를 낭독한 혐의(포고령 위반 등)로 같은 해 7월11일 보인대로 끌려가 구속됐다. 1심 징역 1년, 2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1981년 1월6일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자 전남대에서 해직됐다.

고인은 지난 2001년 펴낸 저서 ‘역사의 증인’에서 “이들간의 보안대 지하실 생활은 공포와 전율의 시간들이었다. 옆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정당인들의 고문당하는 신음소리는 차라리 내가 당하고 말지, 차마 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이었다. 신민당의 정재필 부장과 통일당의 정태성 씨와 백상순씨가 번갈아 가면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모양이었다”고 썼다.

1984년 복직된 뒤 2003년까지 전남대 사학과에서 강의했다. 고향 장성과 관계가 깊은 동학농민운동을 연구해 ‘전남동학농민혁명사’ 등 저서를 남겼고,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대표를 지내며 장성에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세웠다.

유족은 부인 김숙자씨와 2남1녀(이영희·이장희·이보라), 며느리 김정현·배정아씨 등이 있다. 빈소는 광주 빛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광주 5·18묘역. (062-452-4000)

/김다이지자

‘8월의 5·18민주유공자’ 故 신정호씨



8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故) 신정호(사진)씨가 선정됐다.

6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신씨는 1959년 1월20일생으로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퇴근길에 계엄군에게 구타 당한 일을 계기로 시위에 참여했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저는 지금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수기를 남기는 등 평생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

5·18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故 신정호씨는 제1묘역 4구역 81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전남대 ‘30일간 국제항해’ 성료

전남대 국제항해실습단이 30일간의 항해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했다.

6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여수신항 제3부두에서 출항한 국제항해실습단은 기관시스템공학과, 해양경찰학과, 해양생물관리학과, ICT수산자원관리연구소 등에서 선발된 98명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됐다.

실습단은 2천900여 규모의 최첨단 실습선 ‘새동백호’(선장 김대진 교수)를 타고 대만 기류, 일본 오키나와, 일본 하코다테를 거쳐 여수항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따라 연근해 및 국제해역을 항해하며 현장 중심의 해양 교육을 체험했다.

‘새동백호’는 길이 96.45m, 폭 15m, 최대 속력 16노트, 항속 거리 8천400마일에 달하는 국제해사기구(IMO) 규격의 최첨단 실습선으로 총 11명이 승선할 수 있다.

/김다이지자